

통증조절과 치유촉진을 위한 고농도 비타민-미네랄 영양 치료 도입 경험에 관한 연구

이손치과병원

이창규

의과영역에서는 기초대사가 필요한 일반인부터 암치료중인 환자, 그리고 질병 치유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고농도 비타민-미네랄 영양치료가 보편화 되어 있다. 플로리다의 리오단 박사가 시작한 항암 대체 요법으로서의 고농도 비타민 치료는, 현재 숙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 전후의 면역증가, 질병의 빠른 치유, 삶의 질 개선등을 도모하는데 적절한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치과진료시 영양과 치료의 보조적 방안으로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고농도 비타민 치료에는 비타민C를 기반으로 A, B, D, E 군이 항산화와 통증조절, 골다공증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그중 비타민 B군은 1,2,5,6,12가 숙주상황에 따라 기본 베이스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세포단계에서 작용하는 글루타치온, 치옥트산, 바이타솔, 콤비플렉스와 통증조절에 사용되는 황산마그네슘, 미량원소인 셀레늄, 망간, 구리, 아연 등이 고농도 영양치료 요법에 사용된다.

환자의 치료과정에는 숙주의 전신적 저항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항원-항체 반응, 그리고 기초대사에 쓰여지는 미량의 영양원소들의 투여 여부, 장기적으로는 획득면역에 관여하는 영양공급을 대비책으로 하여 치료의 치유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치과치료는 통증수반이 많기에 치과치료에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보조치료로서 영양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 수술후 치유과정 뿐만 아니라 급성감염에 대한 대처로 항생제 소염진통제와 함께 고농도 비타민 영양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치주수술과 임플란트 골이식술 같은 영역에서도 골치유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노인환자나 저항력 떨어진 환자에서 면역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